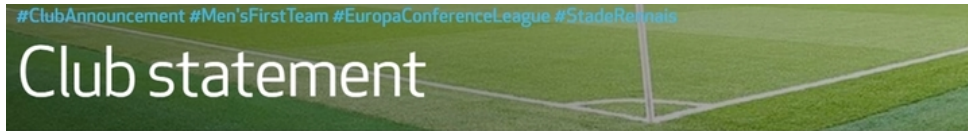


"토트넘 일방적 경기 취소 통보" 렌 공식 항의

등록 2021.12.09 15:54:50

토트넘 "스타드 렌과 경기 열리지 않아" 통보하자
스타드 렌 "UEFA 공식 확인 없어...경기 진행할 것"



@SpursOfficial

Wed 08 December 2021, 21:00 | Tottenham Hotspur

f t e

We can confirm that our UEFA Europa Conference League Group G home fixture against Stade Rennais will not take place tomorrow (Thursday 9 December at 8pm UK) after a number of positive COVID-19 cases at the Club. Discussions are ongoing with UEFA and we shall provide a further update on this fixture in due course.

Additionally, following discussions with the Health Security Agency (formerly Public Health England) and DCMS advisers, the Club has been advised to close the First Team area of its Training Centre at this time, in the interests of the health and safety of players and staff.

All other areas of the Training Centre remain operational.



COMMUNIQUE OFFICIEL

VERS UNE ANNULATION DU MATCH TOTTENHAM / SRFC

08 DÉC 2021 23:29

f t s

[서울=뉴시스] 토트넘과 렌의 공식 성명 (캡처=토트넘, 렌 공식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로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일정을 연기하자 10일(한국시간) 경기를 준비 중이던 스타드 렌(프랑스)이 반발하고 나섰다.

렌 구단은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토트넘이 UEFA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 취소를 발표했다"며 "UEFA 규정상 선수 13명, 1명의 골키퍼가 있으면 경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토트넘은 영국 당국의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UEFA가 공식적으로 경기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오는 10일 렌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기로 예정돼 있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도 구단에서 선수 8명과 스태프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확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EPL 사무국은 오는 12일 열리는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